

# 孝成王 대의 정치 현실과 <怨歌>의 의미 고찰\*

황병익\*\*

## <차 례>

1. 들어가기
2. 孝成王 대의 정치 현실
3. <怨歌>의 구절 풀이
4. <怨歌>의 의미 구조와 작품 성격
5. 마무리

## <국문초록>

<怨歌>는 향가 가운데서도 해독에 어려움이 많은 작품이다. “흐르는 물결의 모래”는 논자마다 특히 많은 견해차를 보인다. 이에 본고는 <원가> 창작의 정치적 배경을 살피고, 그 바탕 위에 판단 근거가 되는 자료를 더하여 좀더 실증적인 논증을 시도했다.

<원가> 1구~8구의 내용이 주로 정치 현실의 문제, 처량한 마음으로 은둔한 슬픔을 담았으니 망실한 후구 9·10구는 현실의 국면 전환을 기원을 담았을 것이다. 이는 전제 정치에 힘을 싣고, 외척 세력인 김순원 일파가 세력화하는 정계 구도에 변화를 촉구하는 메시지로 통했을 것이다. 잣나무에 <원가>를 붙이자 곧 나무가 누렇게 말랐다가 신총에게 벼슬을 주고 난 다음 다시 소생하였으니, 당시 조정에서는 이러한 목이 현상으로써 정계 구도 재편의 구실로 삼았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원가>는 현실적 목적성이 강한 작품이다.

<원가>는 원망의 노래라기보다는 자기 신세를 탄식하는 원모와 슬픔의 노

---

\* 이 논문은 2013년 경성대학교 교내연구과제 지원을 받았습니다.(2013036)

\*\* 경성대학교

래이다. 자기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냄으로써 수목의 정령을 움직여 명분을 얻고 뜻을 이루었으니 천지 귀신과 감통하는 마력의 언어로 여겨졌을 것이다. 마지막에 세상 모든 일을 떠날 듯 은둔을 말한 것은 역설적으로 세상에 대한 아쉬움과 미련을 뜻한다. 그간 다양하게 해석해 왔던 구절인 “널 뭉겨랏 물애”에 화자의 마음이 잘 담겨 있는데, 이 비유는 당시에 신충이 “자기 뜻에 따라 주체적으로 살지 못하고 외부 환경에 따라 휩쓸리면서, 자신을 감당하고 가눌 수 없을 만큼 극심한 공격이나 비방에 시달리는 처지”였음을 말해준다.

핵심어 : <원가(怨歌)>, 신충(信忠), 효성왕, 김순원, 목이(木異), 국면 전환, 물결의 모래, 비주체적

## 1. 들어가기

『삼국유사』 권5 피은(避隱) ‘신충괘관(信忠掛冠)’ 조의 <원가(怨歌)>는 해독에서부터 의미 해석에 이르기까지 견해차가 큰 작품 중 하나이다. <원가>는 거의 모든 행에 걸쳐 해독차를 보이고 있어 해독을 유보한 채 논의를 진행하는 경우도<sup>1)</sup> 있다. <원가> 독해상의 격차를 해소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 내밀한 의미 구조를 밝혀내는 일은 지극히 어려운 작업일뿐더러, 설령 만용을 부린다 해도 그 결과를 믿기 어렵다는<sup>2)</sup> 조심스러운 전체까지 제기될 정도이다.

<원가>에서는 특히 ‘秋察尸不冬爾屋支墮米’와 ‘行尸浪阿叱沙矣以支如支’, ‘世理都隱之叱逸烏隱第也’에 대한 풀이와 해독이 어려운 부분으로 꼽

1) 金聖基, 「怨歌의 해석」, 『한국고전시가작품론 1』(集文堂, 1992), 116면.

2) 尹榮玉, 「信忠掛冠과 怨歌」, 『三國遺事의 문예적 研究』(새문사, 1982), I-133면.

힌다. 이 가운데 첫 구절은 “잣나무는 가을이 되어도 떨어지지 않는다.”처럼 잣나무의 속성을 언급했다는 해석과 “잣나무가 가을도 안 되어 떨어졌다.”처럼 잣나무의 목이(木異) 현상으로 보는 견해가 양립하고, 둘째 구절의 풀이에 대해서는 이견이 많지만 이는 대체로 ‘물결 속의 모래’를 무엇으로 보는가에 따른 시각차이다. 셋째 구절은 화자의 태도나 지향을 담은 부분인데 의견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다.

신충이 <원가>를 지어 나무에 붙이자 잣나무가 누렇게 마르다가 효성왕(孝成王)이 신충을 등용한 후에 다시 소생하였다는 <원가> 관련 서사는 매우 주술적인데 반해 작품의 내용은 서정적이므로 궁극적으로 어디에 주안점을 두고 <원가>의 성격을 파악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도 난제 가운데 하나이다.

이 가운데 ‘行尸浪~’는 <원가>에서 시적 화자의 감정 상태를 특히 잘 드러낸 대목인데, “가는 물결을 애달과하듯!”부터 “못 속의 달그림자 물결이 일면 일그러지듯 세상이 이래서야 야속도 하지”<sup>3)</sup>에 이르기까지 참 다양한 해석이 있어서 작품 이해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 이에 본고는 <원가> 풀이의 키워드인 ‘秋察尸~’와 ‘行尸浪~’, ‘世理~’에 대해 실증적으로 접근하면서 풀이와 의미해석의 간극을 조금이나마 줄여보고자 효성왕대의 정치 현실과 구절 풀이에 입각하여 작품이 담고 있는 의미를 고찰하고자 한다.

## 2. 孝成王 대의 정치 현실

‘신충패관’ 조에 실린 <원가> 관련 서사는 다음과 같다.

“효성왕이 아직 왕위에 오르지 않았을 적에 현사(賢士) 신충과 더불어

3) 金尙憶, 『郷歌』(한국자유교육협회, 1974), 457면 ; 朴喜璣, 『散花歌 신향가집』(佛日出版社, 1988), 21면.

궁궐 마당의 잣나무 아래에서 바둑을 두면서 말하기를, ‘훗날에 만약 경을 잇는다면 저 잣나무와 같으리.’라고 하니 신충이 일어나서 절을 하였다. 몇 달 뒤에 왕이 즉위하여 공신들에게 상을 주면서 신충을 잊어버리고 차례에 넣지 않았다. 신충이 원망하며 노래를 지어 잣나무에 붙였더니 나무가 갑자기 누렇게 말랐다. 왕이 괴상스럽게 여겨 알아보도록 해서 노래를 가져다가 바치자 왕이 깜짝 놀라 말하기를, ‘정사에 바쁘다 보니 골육 같은 사람을 잊어버릴 뻔했구나!’라고 하고는 곧 불러서 작록을 주니 잣나무가 곧 소생했다.”<sup>4)</sup>

요약하면 “효성왕이 등극 전에 잣나무 아래에서 즉위하면 신충에게 벼슬을 줄 것이라 약속한다.” → “등극한 뒤에 신충에게 벼슬을 주지 않다.” → “신충이 잣나무에 향가를 붙인다.” → “잣나무가 누렇게 마른다.” → “신충에게 벼슬을 내린다.” → “잣나무가 소생하다.”이다.

효성왕이 세자 시절에 신충과 한 약속을 잊었다고 기술했지만 신충의 괘관(掛冠)과 정계 복귀는 당시 효성왕의 입지나 정치 현실을 통해 이해할 필요가 있다. 신라 34대 효성왕은 성덕왕(聖德王)의 둘째 아들이고, 35대 경덕왕의 동복형이다. 효성왕은 원년(737년)에 이찬 정종(貞宗)을 상대등으로 삼았고, 아찬 의충(義忠)을 중시(中侍)로 삼았다가, 3년 봄 정월 중시 의충이 죽고 신충(信忠)을 중시로 삼았다.<sup>5)</sup> 경덕왕 16년(757년) 봄 정월에 상대등 김사인(金思仁)이 병으로 면직하면서 이찬 신충을 상대등으로 삼았으니<sup>6)</sup> 신충은 중시와 상대등 등 신라의 주요 관직을 두루 거친 중요 인물이다.

4) “孝成王潛邸時 與賢士信忠 圍碁於宮庭栢樹下 嘗謂曰 他日若忘卿 有如栢樹 信忠興拜 隔數月 王卽位賞功臣 忘忠而不第之 忠怨而作歌 帖於栢樹 樹忽黃悴 王恠使審之 得歌獻之 大驚曰 萬機鞅掌 幾忘乎角弓 乃召之賜爵祿 栢樹乃蘇”(『三國遺事』 卷5, 避隱, 信忠掛冠).

5) “孝成王 聖德王第二子 母炤德王后 聖德王薨卽位, 以伊滄貞宗爲上大等 阿滄義忠爲中侍, 三年春正月 中侍義忠卒 以伊滄信忠爲中侍”(『三國史記』 新羅本紀 第9, 孝成王).

6) “十六年春正月 上大等思仁病免 伊滄信忠爲上大等”(『三國史記』 新羅本紀 第9, 景德王).

이에 신라 중대(中代) 중시·상대등의 정치적 입지를 살펴야 한다. 중시(中侍=侍中)는 집사부(執事部)의 장관이다. 집사부는 행정을 분장(分掌)하는 일반 관부(官府)와 국왕의 중간에서 위로는 왕명을 받들고 아래로는 여러 관부를 통제한다.<sup>7)</sup> 이에 집사부 중시는 병렬적으로 할거하고 있는 중앙 제1급 행정관서인 제부(諸部)·부(府)를 유기적으로 통제함으로써 국가권력을 국왕에게 일원적으로 귀속시키니<sup>8)</sup> 왕의 측근에서 기밀사무(機密事務)를 관장하는 국왕의 행정적 대변자이자 국정을 총괄하는 관직이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는 대체로 왕과 혈연적으로 가까운 인물(왕족)이 임명되어 실제로는 관직상의 권한 이상을 가졌다.<sup>9)</sup> 중시는 혈연적으로 제(弟), 손(孫), 숙부(叔父), 질종제(姪從弟) 등 7촌 이내의 부계친을 비롯해 왕의 지극한 근친들이 임명되어 왕의 보조자 내지 안전관 역할을 하였다.<sup>10)</sup> 중시를 역임한 지경(智鏡)과 개원(愷元, 禮元)은 문무왕의 동생, 대장(大莊)은 신문왕의 종형제(從兄弟, 문무왕 3자의 아들), 신충은 효소왕의 종숙(從叔, 성덕왕의 從弟)이었던 것이<sup>11)</sup> 그 예이다.

상대등은 신라 최고의 관직으로 귀족 전체의 결합을 위한 매개이자 상징적인 존재이다. 대체로 왕과 가까운 혈연이나 왕을 추대한 공로자를 상대등에 앉힌 것, 상대등이 섭정(攝政), 나아가 왕위를 계승하기도 한 것을 볼 때 상대등은 왕 족당(族黨)의 대표자 같은 느낌을 준다.<sup>12)</sup> 중대의 상대등 중 김유신이 무열왕의 처남, 개원(愷元, 禮元)은 효소왕의 중조부, 신충(信忠)은 경덕왕의 종숙(從叔), 김양상(金良相)은 혜공왕의 고종형제(姑從兄弟) 등으로 당시 왕의 지근친(至近親)이었다.<sup>13)</sup> 상대등은 왕과 귀족의 마찰을 극복하면서 원만한 국정집행을 조정하는, 귀족의 대표이면서

7) 李基白, 「新羅 執事部の 成立」, 『新羅政治社會史研究』(一潮閣, 1974), 152면.

8) 李基東, 「新羅 興德王代の 政治와 社會」, 『國史館論叢』 21, 1991, 99면.

9) 신형식, 『新羅史』(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985), 140면.

10) 金昌謙, 『新羅 下代 王位繼承 研究』(景仁文化社, 2003), 269면.

11) 金昌謙, 위의 책, 274면.

12) 李基白, 「上大等考」, 『新羅政治社會史研究』(一潮閣, 1974), 123면.

13) 金昌謙, 앞의 책, 235면 ; 申滢植, 『統一新羅史研究』(한국학술정보, 2004), 162

면 참조.

전제화해 가는 왕권과 조화하는 양면성을 지녔다.<sup>14)</sup>

신문왕대(神文王代)에 확립된 중대왕권의 전제(專制) 정치는 성덕왕, 경덕왕 대에 그 절정을 이루었다. 이러한 전제 정치가 강력한 관료제에 입각한 율령정치를 바탕으로 한 것도 사실이지만 소수 귀족 세력의 뒷받침을 필요로 했다. 중대 사회의 왕권 전제화를 상징하는 위의 세 왕은 즉위 초에 선비(先妃)를 축출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 축출된 왕비와 관련된 세력은 전제왕권의 희생자였다.

왕명	왕비명	가계	동향
神文王	失名(先) 神穆王后(後)	金欽突 女 金欽運 女	出宮, 父 모반사건 연루
聖德王	嚴貞王后(先) 炤德王后(後)	金元泰 女 金順元 女	出宮, 父(中侍)
孝成王	惠明王后	金順元 女	
景德王	三毛夫人(先) 滿月夫人(後)	金順貞 女 金義忠 女	出宮, 父(上宰 『續日本紀』) 父(中侍)

신라 중대와 하대에 중시와 상대등은 정치권력에 깊숙이 관여되어 있었다. 신라 중대 왕실은 전제왕권을 유지하기 위해 하나의 특정가문과 결속하기보다는 2~3개 가문과 연합하고 타협하며 왕통을 유지했다. 동시에 가장 유력한 가문과는 왕비나 시중, 상대등의 관직을 통해 공존관계를 갖게 된다. 그러므로 왕통은 2~3개의 가문과 정치적 협조를 하거나 불교관계사업의 추진, 경덕왕의 한화정책(漢化政策)과 같은 개혁으로 불만귀족세력을 억압하기도 했다. 다시 말해 왕의 정치적 개혁이나 새로운 정책 실시가 특정 가문과의 협조 내지 타협으로 이룩되었기 때문에 왕위의 교체와 개혁 정책의 성패 및 새로운 귀족세력의 등장은 일정한 관련을 갖게

14) 申滢植, 『新羅史』(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985), 136면.

된다. 동시에 전제왕권의 유지는 귀족 세력의 정치적 타협이 우선될 때 가능하므로 특정가문의 득세는 도리어 전제왕권을 제약하기도 한다. 여기서 전제왕권기에는 빈번한 시중의 교체와 왕권의 출궁이 뒤따르게 되었다.<sup>15)</sup>

- (1) 효성왕 2년 봄 2월, 당나라에서 사신을 보내어 조서를 내려 왕비 박씨를 책봉하였다.
- (2) 효성왕 3년 3월, 왕이 이찬 순원의 딸을 맞아들여 왕비로 삼았다.
- (3) 효성왕 4년 봄 3월, 당나라에서 사신을 보내어 왕비 김씨를 책봉하였다.
- (4) 효성왕 4년 8월, 파진찬(波珍澹) 영종(永宗)이 모반하였다가 복주(伏誅)되었다. 이에 앞서 영종의 딸이 후궁으로 들어갔는데 왕이 심히 사랑하여 은총이 날로 더하니 왕비가 이를 질투하여 그 족당과 더불어 죽이려고 꾀하였다. 이에 영종이 왕비와 그 족당을 원망하여 드디어 모반하게 된 것이다.

효성왕 2년에 왕비 박씨를 책봉하였다가 다음 해에 다시 김순원(金順元)의 딸을 혜명(惠明) 왕후로 책봉하였으니 이는 김순원의 정치적 활동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었음을 밝히고 있다.<sup>16)</sup> 효성왕 4년, 효성왕의 후궁을 제거한 것도 김순원 세력이 주도한 것으로 파악한다.<sup>17)</sup> 결국 효성왕대는 왕권의 안정에 협력하는 박씨 세력과 후궁 세력, 그리고 김순원 세력의 세력다툼이 치열하여 극심한 대립과 갈등을 겪었음을 알 수 있다.<sup>18)</sup>

요컨대, 효성왕은 16세가량의 나이에,<sup>19)</sup> 앞의 성덕왕이 마련해 놓은 정치적 안정을 바탕으로 즉위했지만 6년이란 짧은 재위 기간 동안 계속

15) 申澄植, 『統一新羅史研究』(한국학술정보, 2004), 161~162면.

16) 金壽泰, 『新羅中代政治史研究』(一潮閣, 1996), p.92 ; 박해현, 『신라 중대 정치사 연구』(국학자료원, 2003), 112~113면.

17) 김수태, 위의 책, 86면, 96~97면.

18) 曹凡煥, 「王妃의 交替를 통하여 본 孝成王代의 政治的 動向」, 『韓國史研究』 154 (한국사연구회, 2011), 38면.

19) 金壽泰, 위의 책(1996), 90~95면.

정치적 혼란을 겪었다.<sup>20)</sup> 신라 중대의 왕실은 가장 유력한 2~3개의 가문과 왕비나 시중, 상대등의 관직을 통해 연합하고 타협하면서 왕통과 전제왕권을 유지하고 공존관계를 유지했지만, 외척 세력인 김순원 계의 강대화로 인해 약관의 효성왕은 당시의 정치적 정세 속에서 별다른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였다.<sup>21)</sup> (4)와 같이 영종의 모반이 실패한 2년 후 효성왕은 아무런 이유도 밝혀지지 않은 채 갑자기 죽는다. 이에 효성왕은 자신을 둘러싸고 조성된 당시의 긴박한 분위기에서 큰 역할을 하지 못하는 당시 정치 상황에 크게 영향을 받았다는<sup>22)</sup> 진단이 나왔다. 효성왕의 친족인 신충이 벼슬길에서 벗어났다가 복귀하는 과정을 담은 <신충 괘관> 조는<sup>23)</sup> “신충을 잊어버리고 차례에 넣지 않았다(忘忠而不第之)”는 문면 그대로 효성왕의 무심함 때문에 생겨난 위약이라기보다는 당시 왕과 태자를 정점으로 하여 극히 좁은 범위의 근친왕족들이 상대등, 병부령, 재상, 어룡성(御龍省) 사신(私臣), 시중 등의 요직을 두고 경쟁하는 과정에,<sup>24)</sup> 신충이 힘의 우열에서 밀려났다가 다시 세력을 회복해 가는 과정을 담고 있다.

20) 李基白, 「統一新羅와 渤海의 社會」, 『韓國史講座』 古代篇(一潮閣, 1982), 310~311면, 314~315면.

21) 金壽泰, 앞의 책(1996), 97면.

22) 金壽泰, 「전제왕권과 귀족」, 『한국사』 9(국사편찬위원회, 1998), 101~104면.

23) “後漢 逢萌이 王莽의 신하되기를 꺼려 東都의 성문에 의관을 걸어놓고 요동으로 떠났다는 고사와 南朝梁의 陶弘景이 侍讀을 지내다가 집이 가난하여 지방 수령으로 보내줄 것을 청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朝服을 神武門에 걸어놓고 떠난 고사에서 유래한 말이다.”(晉 袁宏 『後漢紀』 光武帝紀 5 “逢萌) 聞王莽居攝 子字諫莽殺之 萌會友人曰 三綱絕矣 禍將及人 卽解衣冠 挂東都城門 將家屬客於遼東”, 檀國大學校 附設 東洋學研究所 編, 『漢韓大辭典』 5, 檀國大學校出版部, 2002, 1169면).

24) 李基東, 『新羅骨制品社會와 花郎徒』(一潮閣, 1984), 153면.



### 3. <怨歌>의 구절 풀이

갓 도히 자시

(質 좋은 갓이)(物叱好支栢史)

ㄹ술 안들곰 ㄹ르디매

(가을에 말라 떨어지지 아니하매,)(秋察尸不冬爾屋支墮米)

너를 하니저 흥시믄론

(너를 중히 여겨 가겠다 하신 것과는 달리)(汝於多支行齊教因隱)

울월던 노취 가식시온 겨스래여

(낮이 변해 버리신 겨울에여.)(仰頓隱面矣改衣賜乎隱冬矣也)

드라리 그르메 노린 못긋

(달이 그림자 내린 연못 갓)(月羅理影支古理因淵之叱)

널 몹겨랏 몰애로다

(지나가는 물결에 대한 모래로다)(行尸浪阿叱沙矣以支如支)

즈시샷 브라나

(모습이야 바라보지만)(兒史沙叱望阿乃)

누리 모든갓 여히온디여

(세상 모든 것 여히여 버린 處地여.)(世理都之叱逸烏隱第也)

(後句亡)

(김완진 해독)

먼저 제2구 ‘秋察尸不冬爾屋支墮米’에 대한 논자들의 해석은 다음과 같  
이 둘로 나누어진다.

(1) “ㄹ술 안들 이울이 디매(가을에 안 시들어 떨어지매)”(양주동)/“ㄹ술 안드리웃 디매(가을에도 잎이 떨어지지 아니하고)”(지현영)/ㄹ술 안들 스 온으디미(가을 아니 이울어지매)”(이탁)/“가잘 안달 이울이디매(가을에도 아니 이울어짐에)”(김상익)/“ㄹ술 안들 글오히디매(가을에도 그릇되이(枯凋) 아니 지매)”(서재극)/“ㄹ술 안들 이우리 디매(가을에 시들어 안 떨어 지므로)”(전규태)<sup>25)</sup>/“ㄹ술 안들곰 ㄹ르디매(가을에 말라 떨어지지 아니하 매)”(김완진)/“ㄹ술 안들 니위 디매(가을에도 잇대어 떨어지지 아니하 매)”(금기창)/“ㄹ술 안들 니웁 디매”(가을에 아니 이울어지매)(양희철)

25) 全圭泰, 『論註 鄉歌』(정음사, 1976), 62~69면.

(2) “ㄱ슬 안들 잣가오어 빠러디메”(오꾸라)/“가슬 아니되 움기짐메(가을도 아닌데 빛이 시드는구나)”(정열모)/“ㄱ슬철 아닌 겨르리 움기 디메(가을 아닌 때 생기를 잃었네)”(정열모)/“ㄱ슬 안들 이우리디매(가을도 아닌데 시들어지니)”<sup>26)</sup>/“ㄱ슬 안들 니르기 디미(가을에 아니 이르러 떨어지매)”(신재홍)<sup>27)</sup>/“겨슬 안들 잣가보 디매(가을이 가깝지 아니하여서 잎이 떨어지매)”(강길운)<sup>28)</sup>

이 구절에 대한 그간의 해독은 대체로 “가을에 안 시들어 떨어지매”<sup>29)</sup>나 “가을도 아닌데 빛이 시드는구나.”로<sup>30)</sup> 양분되어 가을에도 시들지 않는 잣나무의 불변성으로 이해하기도 하고, 가을도 안 되어서 시들어버린 잣나무<sup>31)</sup>의 이변으로 읽기도 한다.

<월가>의 “秋察尸~”의 의미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여기서 가장 주목해야 할 키워드는 ‘不冬’이다. ‘不冬’이 ‘秋察尸不冬’과 어울려 서술의 기능을 하는지, 뒤의 서술부 ‘爾屋支墮米’를 부정하는 말인지에 따라 해독에 상당한 차이가 생기기 때문이다.

26) 崔鶴璇, 『鄉歌研究』(宇宙, 1985), 82~83면.

27) 신재홍, 『향가의 해석』(집문당, 2000), 280~281면.

28) 姜吉云, 『鄉歌新解讀研究』(한국문화사, 2004), 167~168면.

29) “ㄱ슬 안들 이올이 디매(가을에 안 시들어 떨어지매)”(梁柱東, 『古歌研究』, 1960, 612면), “ㄱ슬 안들곰 므르디매(가을에 말라 떨어지지 아니하매)”(金完鎭, 『鄉歌解讀法研究』, 서울대학교, 1980, 138면, 143면).

30) “가슬 아니되 움기짐메(가을도 아닌데 빛이 시드는구나)”(정열모, 새로 읽은 향가, 『한글』 통권99, 한글社, 1947, 399면), “가슬철 아닌 겨르리 움기 디메(가을 아닌 때 생기를 잃었네)”(정열모, 『향가 연구』, 사회과학원출판사, 1965, 251면).

31) <怨歌> 첫 구의 ‘栢史’가 잣나무인가 측백나무인가에 대해 이견이 분분하다. 중국 고전에서 ‘栢/柏’은 측백나무일 수 있으나 우리 문헌에서는 잣나무로 봐야 한다는 주장(박봉우, 「옛 그림과 글에서 보는 잣나무」; 이천용 편, 『잣나무의 생태와 문화』, 숲과 문화, 2006, 11면)도 있고, 중국 고전에 ‘松柏’이 나오지만 “잣나무는 사천성은 물론 황하나 양자강 유역 등 중국 본토에서는 자라지 않기 때문에 소나무와 측백나무로 보는 것이 옳다.”는 견해(박상진, 잣나무와 목조 문화재; 이천용 편, 위의 책, p.18)도 있다. 두 나무 모두 상록수로서 그 상징 또한 흡사한데, 정치한 논의를 거쳐야 결론에 이를 수 있을 듯하다. 이에 여기서는 대체적 견해에 따라 <월가>의 ‘栢’을 <신라촌장적>에서 세금을 매기던 수목으로, “한결같음, 충성심, 지조와 절개”를 뜻하던 ‘잣나무’로 보고자 한다.

(3) “不冬喜好尸置乎理叱過”(〈隨喜功德歌〉) : “안들 깃흘 두오릿고”(양주동)/“안들 깃글 두오릿과”(기뻐함 아니 두리이까)(김완진)

(4) “佛影不冬應爲賜下呂”(〈請佛住世歌〉) : “佛影 안달 應ᄃᆞ샤리”(佛影 아니 應하시리)(양주동, 김완진)

(5) “他道不冬斜良只行齊”(〈常隨佛學歌〉) : “년길 안들 빗격 녀져”(양주동)/“녀느 길 안들 빗격 녀져”(딴 길 비껴가지 앓을진저)(김완진)

(6) “不冬萎玉內乎留叱等耶”(〈恒順衆生歌〉) : “안들 이우누올ᄃ다라”(양주동)/“안들 입으ᄃ오롯다야”(이울지 아니하는 것이더라.)(김완진)

(3)에서 안들(不冬)은 “기뻐함 두리이까(喜好尸置乎理叱過)”를, (4)에서는 “應ᄃᆞ샤리(應爲賜下呂)”를, (5)에서는 “빗격 녀져(斜良只行齊)”를, (6)에서는 “이우누올ᄃ다라(萎玉內乎留叱等耶)”를 부정하는 말로 쓰이고 있다.

(7) “권신 최충헌(崔忠獻)으로 말하면 … 신하된 자의 뜻에 의의(擬議)하지 아니하신 죄악(罪惡)인 것이 (분명히) 있거늘”(權臣崔忠獻矣段 … 人臣之意良中 擬議 不冬教 罪惡是去 有乙)/“중서령(中書令) 최이(崔怡)로 말하면, … 국가를 보익(輔翊)시키온 바 없이 아니하거늘”<sup>32)</sup>

위의 ‘不冬教’는 ‘안들이신’. “…하지 아니하신”의 뜻이다. 고려시대까지는 동사를 부정할 때 ‘不冬/안들’을 쓰고 명사를 부정할 때는 ‘不喻/안디’를 써 동사부정과 명사부정을 구별했는데, 이 문법은 15세기 이전에 없어졌다. 다만 이두에서는 이 어법이 근대까지도 보수적으로 지속되어 구별되었다. “한번 외오 썩러디면 버셔늘 길 영원니라 텃당디옥 분노홀 제 지척간에 비랏ᄃᆞ니 그 안니 두려오며 니 안니 슴갈쇼냐”(思鄉歌 금베드로본 9:209)<sup>33)</sup>처럼 ‘不冬’은 대체로 서술어 기능을 하고, 피부정사에 후행하는데 그 피부정사가 용언이라는 특징이 있다.<sup>34)</sup>

‘不冬’은 이두문에서도 다음과 같이 쓰였다.

(8) 若自首不實及不盡者 以不實不盡之罪 罪之至死者 聽減一等 - 自告爲

32) 南豐鉉, 『吏讀研究』(태학사, 2000), 563면.

33) 박재연 주편, 선문대 중한번역 문헌연구소, 『고어대사전』 5(학고방, 2010), 63면.

34) 배대은, 『歷代 이두사전』(형설출판사, 2003), 152면.

乎矣 直陳不冬齊 漏落盡告不冬爲在乙良 不實不盡之罪 以與罪爲遣 現告人亦當死罪爲在乙良 減一等以論齊<sup>35)</sup>

(9) 其逃叛者 雖不自首 能還歸本所者 減罪二等 - 逃亡背叛罪人 亦必于現告不冬爲良置 本處良中還歸爲在乙良 減罪二等齊<sup>36)</sup>

(8)의 앞 뒤 내용을 풀이하면, “자수(自首)를 하더라도 믿음성이 적거나 모든 것을 실토하지 않는다면 부실부진(不實不盡)의 죄를 묻되, 죄가 사형에 이르는 자는 한 등급을 감한다. - 스스로의 죄를 알리더라도 곧이 말하지 않거나 빠뜨리고 다 말하지 않는다면 부실부진의 죄로써 죄를 묻고, 스스로 죄를 고한 자가 마땅히 사형에 이르는 벌을 받거든 1등급을 낮출 것이라.”이다. 여기서 ‘不冬齊’은 “않거나”, ‘不冬爲在乙良(안들하견을안(낭))’은 “하지 않았다면”이란 뜻이다.<sup>37)</sup> (9)는 “도망한 자가 비록 자수하지 않더라도 본디 있던 곳으로 다시 돌아온 자라면 죄를 2등급 감해준다.”<sup>38)</sup>이다. 이두문에서 ‘不冬爲良置(안들하야두)’는 “하지 않아도”의 뜻이다.<sup>39)</sup> 여기서도 ‘不冬’은 “말하다, 자수하다, 고하다”라는 서술어를 부정한다. 이에 “안들/안니-”는 용언 위에 붙어서 부정 또는 반대의 뜻을 나타내는 말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즉, <원가>의 “秋察尸不冬爾屋支墮米”에서 ‘不冬’은 ‘ᄃᄂ’에 대한 서술 기능보다는 서술어 ‘爾屋支墮米’를 부정하는 말이다.

이에 2구 “秋察尸不冬爾屋支墮米”은 “가을에도 말라 떨어지지 아니하는데”이고 ‘不冬’은 서술어 “이울다, 이울다”를 부정하는 말이다. 이는 “초목이 이울어든 슬픈 모습미 나느니”(月序 16)나 “넙 프며 이우루메 비와 이슬왜 기우도다(榮枯雨露偏)”(두해초 20:14)에서와 같이 ‘고사(枯死)

35) 『大明律直解』 卷1 名例律；奎章閣 資料叢書 法典篇 『大明律直解』(서울대학교奎章閣, 2001), 73면.

36) 『大明律直解』(위의 책), 73면.

37) 中樞院 編, 『吏讀集成』(國學資料院, 1975), 11면.

38) 예문 (9)의 뒷부분의 풀이는 “도망하여 배반한 죄인이 반드시 스스로 죄를 고하지 않더라도 본디 있던 곳으로 돌아온다면 죄를 2등급 감해준다.”이다.

39) 中樞院 編, 앞의 책, 12면.

나 황취(黃悴)’의 뜻이다. “죽백(竹柏)은 그 성질이 서로 다르지만 추위를 견딘다는 점에서는 동일하고…….”처럼<sup>40)</sup> 대나무, 잣나무는 소나무와 함께 추위에도 변하지 않는 깨끗한 지조의 상징으로 여겼으니 가을에도 지지 않는 상록불개(常綠不改)의 일반적 의미를 말한다.<sup>41)</sup>

(10) 고열(顧悅)은 간문제(簡文帝)와 같은 나이였지만 머리가 먼저 희어졌다. 문제가 물었다.

“그대가 어찌하여 나보다 먼저 머리가 희어졌소?”

그러자 이렇게 대답하였다.

“저의 머리는 물버들(漚柳) 같아서 가을을 바라만 보아도 곧 잎이 지는 것이요, 임금의 머리는 송백(松柏)과 같아서 설상(雪霜)을 겪으면 더욱 무성해지기 때문입니다.”<sup>42)</sup>

위에서 고열(顧悅)은 신하인 자신의 머리를 가을이 들기 전에 낙엽 지는 ‘버들’에 비유하고, 간문제(簡文帝) 사마욱(司馬昱)의 머리를 눈서리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더욱 무성해지는 ‘송백’에 견주고 있다. 이는 자고로 왕이란 시절과 세월에 따라 변하지 말고, 어려움 속에서도 한결같은 모습을 유지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강조한 말이다. 주(周) 성왕(成王)이 동생 숙우(叔虞)와 오동나무 잎으로 옥새를 만들어 장난삼아 주면서 “이것으로 너를 봉하겠다.”고 했는데, 후에 사일(史佚)이 “천자는 장난삼아 하는 말이 있을 수 없다.” 하므로 성왕이 숙우를 당(唐)에다 봉했던 고사,<sup>43)</sup> “장차 불러서 이봉(泥封)할 것이며 임기 만료 때까지 가지 않을 것이라 하심에 저는 하늘이 저의 운명을 열어주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임금에겐 허튼말이 없는 법이니 스스로 영화에 오름에 길이 생긴 것을 기쁘게 생각했습니다.”<sup>44)</sup> 등 ‘왕자무희언(王者無戲言)’은 왕의 언행이나 약속이 미리

40) “是則竹柏異心而同貞 金玉殊質而皆寶也”(『文心雕龍』 第47, 才略).

41) 金聖基, 앞의 책, 117면.

42) “顧悅與簡文同年 而髮蚤白 簡文曰 卿何以先白 對曰 蒲柳之姿 望秋而落 松柏之質 凌霜猶茂”(劉義慶 撰, 林東錫 譯註, 『世說新語』 1/4, 동서문화사, 2011, 212면).

43) 『史記』 晉世家.

44) “謂將召以泥封 方不及於瓜代 吾聞語矣 天若啓之 王者無戲言 自喜榮升之有路”(林

정해진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혹은 약정한 대로 실행되기를 기대할 때 쓰는 말이다. 그러므로 <원가>에서 가을이 되어도 이울지 않는 잣나무를 들어 비유한 것은 “임금께서는 허튼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고사를 통해 효성왕이 신충에게 한 약속, “훗날에 만약 경을 잊는다면 저 잣나무와 같으리라.”(他日若忘卿 有如栢樹)를 상기시키려 했다.

그러나 당시 정치 상황을 볼 때, 신충과 효성왕의 약속을 신충의 정계 복귀를 위한 계기로 삼았을 뿐이지 왕에 대한 직접적인 압박이나 간언으로 볼 수는 없을 듯하다. 왜냐하면 효성왕이 6년이란 짧은 재위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정치적 혼란을 겪은 점, 외척 세력인 김순원 계의 강대화로 별다른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한 점, 신충이 이후 단속사에 들어가 왕의 복을 빈 점, 신충이 혈연적으로 효성왕의 지친(至親)의 입장이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신충의 말은 특정가문의 득세에 따라 왕권에 대한 제약이 생겨서는 안 되고 귀족 세력의 정치적 타협이 우선되어 전제왕권을 유지해 가야 함을 강조한 말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다음 구절인 4구의 ‘仰頓隱面矣改衣賜乎隱’을 “쳐든 나치 개이사온 디에(쳐든 면목이 깨졌는고)”, “브라든 느치 기이샤온 겨르리라(쳐들었던 얼굴이 깎인 때이기에)”로 풀이하여,<sup>45)</sup> 이 대목의 숨겨진 주어를 왕으로 잡고 왕이 신충과 약속을 지키지 않아 체면을 구겼음을 직설적으로 언급한다는 관점도 있지만, 대체적인 해독은 “울월던 느치 가식시온/고티샤온”<sup>46)</sup>이다.

樁, 啓狀祭文 二十二, 上某官啓 代人, 『西河先生集』 卷6).

45) 정열모, 「새로 읽은 향가」, 『한글』 99(한글사, 1947) ; 정열모, 『향가연구』(사회과학원출판사, 1965), 251면.

46) “울워 조을은 늦애 고티샤온들로”(오꾸라), “울월던 느치 겨샤온디(우러러 뵈었던 왕의 얼굴이 계시운데)”(양주동), “울월던 느치 고티샤온 겨을여(얼굴을 몇 달 지나지 않은 오늘에 고치신 겨을이로구나)”(지현영), “울월던 낯으 가식스온디여(우렐던 낯이 變하시온져)”(이탁), “울월던 느치 가식시온 겨스레여(낯이 변해 버리신 겨을에여)”(김완진), “우렐던 나치 계샤온대(우러르던 낯이 계시오매)”(김상억), “울월이든 낯이 가식시온 디라(우러러 뵈은 얼굴이 벌써 변하신 것이로구려)”(유창균), “울월든 늦의 가식시온 듬의야”(울월던 낯의 고치이시온 겨을에야)(양희철), “울월든 느치 가식시온 디야(우러르던 얼굴이 변하신 데에야)”(신재홍).

‘仰頓隱’이 ‘面’을 꾸미는데, 여기서 ‘면’이란 “낯, 얼굴, 얼굴의 바닥, 안면(顏面)·면모(面貌)”이므로 용안(龍顏)을 칭한다.

(11) “늑딕게 미더 울어로미 어려우니라(難仰他人矣)”(번역 소학 8:36), “울얼 仰”(『類合』 下5)

(12) “그 아내가 돌아와서 첩에게 말하기를, 남편이란 우리러 바라보면서 일생을 마쳐야 할 사람인데, 지금 이 모양이다.”<sup>47)</sup>

(13) “백성들은 황제가 이미 하늘로 올라간 것을 우리러 바라보면서, 그 활과 용의 수염을 끌어안고 부르짖었다.”<sup>48)</sup>

이를 보면, <원가>의 “울월던 낯”(仰頓隱面)은 윗사람, 존경의 대상을 바라보는 마음을 담아, “곁에서 우리러 공경하고 머리 조아리며 모시던<sup>49)</sup>분의 낯빛”이란 의미이다.

<원가>의 ‘改衣賜乎隱’은 위의 예들에서처럼 “고티다”의 뜻이다.

(14) “아비 道애 고팀이 업세사(無改於父之道)”(『宣小』 2:24), “관도(官渡)애 쏘 술윗 자취를 고토투(官渡又改轍)”(중간본 『두시언해』 2:36)

“마음을 고침, 이전의 생각이나 태도를 바꾼다.”는 의미의 개심(改心), “낯빛이 달라진다.”는 개안(改顏)과 같은 말이다. 왕의 낯빛 뒤에 “가식 시온/고티샤온(改)”이 뒤따르니 ‘낯빛(얼굴빛)’<sup>50)</sup>이 달라졌음을 뜻한다. 늘 우리러 모시던 임금의 낯빛이 달라졌다는 뜻이니 정철의 <속미인곡>에서 “어쩐지 날 보시고 네로다 여기실새/나도 님을 믿어 군뜻이 전혀 없어/이래야 교태야 어지러이 하였던지/반기시는 낯빛이 예와 어찌 다르신고!”와 같은 뜻이 되는 것이다.

다음 구절 5·6구 ‘月羅理影支古理因淵之叱 行尸浪阿叱沙矣以支如支’, 즉 “드라리 그르메 느린 못긋(달이 그림자 내린 연못 갓)/널 묻겨랏 몰애로

47) “其妻歸告其妾曰 良人者 所仰望而終身也 今若此”(『孟子』 離婁 下).

48) “百姓仰望黃帝既上天 乃抱其弓與龍胡顏號”(『史記本紀』 孝武本紀).

49) 비슷한 말로 ‘양견(仰見)·양관(仰觀)·양시(仰視)·양고(仰顧)·양망(仰望)·양모(仰慕)·양침(仰瞻)’이 있다.

50) “予豈若是小丈夫然哉 諫於其君而不受 則怒悻悻然見於其面 去則窮日之力而後宿哉”(『孟子』 公孫丑 下).

다(지나가는 물결에 대한 모래로다)”(김완진)에서 “널 뭍겨랏 몰애로다”에 대한 풀이와 해독은 가장 어려운 부분으로 손꼽힌다.

이 대목에 대한 풀이 가운데 몇몇만 제시해도 다음과 같다.

(15) “널 뭍결 애와타듯(가는 물결 애원하듯)”(양주동, 최학선, 김상억), “널 물 씌스사 익히드히(지나가는 물결이 언덕을 할퀴듯이)”(서재극), “널 물앗 모래 씨기닷기(흐르는 물에 씻기는 모래처럼)”(정열모), “널 뭍결잇 사이 잇듯(지나가는 물결에 間隔 있듯이)”(지현영), “널 물 아리 모사히 이기다히(물 아래 모래가 출렁이는 물결도 이겨내듯이)”(류렬),<sup>51)</sup> “널 뭍결 물긋스 모래의 이치다비(지나가는 물결이 물가의 모래에 흔들리듯이)”(금기창), “널 뭍결앗 물기 머물기다기(흐르는 물결에 모래가 머무름과 같이)”(유창균)/“널 뭍결앗 물기 입답”(갈 뭍결엿 모래에 입듯)(양희철)/“널 뭍겨랏 식이기 다히(오고가는 물결에서 새어나감 같이)”(신재홍), “널 뭍결가죽물게 이다비(출렁거리는 물결에서 모래가 도태되듯이)”(강길운)

6구 “널 뭍겨랏 몰애(行尸浪阿叱沙矣)”의 뜻이 모호한데, 여기에 논자마다 차이가 있는 서술어 “애와타듯(애원하듯)”, “익히드히(할퀴듯이)”, “이치다비(흔들리듯이)”, “이다비(도태되듯이)” 등을 붙이면서 뜻이 모호해진다. 물결에 쓸리고 있는 모래의 처지와 마음을 잡지 못하고 방황하는 자기 모습을 은연중에 일체화하여, 모래인 듯 자신인 듯, 둘 모두인 듯이 “모습일랑 바라나 세상 모두 잃은 처지여라”라고 했다. 물살에 쓸리고 있는 모래는 모습(뚜렷한 지향)을 바라보지만 지향처(=누리)를 잃었고, 작자도 왕의 모습을 바라나 헛된 그림자일 뿐 모든 것을 잃은 처지라 했다.<sup>52)</sup> 일렁이는 물결 때문에 달그림자가 드러나기 어려우므로 “모습이야 바라보지만, 세상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는 말 속에는 “못에 비친 달, 곧 왕의 모습조차도 뚜렷이 바라볼 수 없다”는 의미로 보기도<sup>53)</sup> 하니 “물결의 모

51) 류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과학원 언어학연구소 기획 조선어학전서 13 『향가연구』(박이정, 2003), 192~194면.

52) 황폐강, 『향가문학의 이론과 해석』(일지사, 2001), 424면.



래”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탄식, 안타까움, 좌절 등 다양한 정서로 이해하고 있다.

이 외에도 “물 아래에 모래가 흔들림 없이 출렁이는 물을 이겨내듯이, (자신이 왕과 맺은) 전날의 믿음을 지키고 있다는 안타까운 마음을 담고 있다”는<sup>54)</sup> 해석은 이 대목을 효성왕이 자신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이라는 믿음으로 보았고, 또 “물결이 파란(波瀾), 파랑(波浪)이라면 이는 지배계층 권력 쟁취의 장이다. 상승적 화합을 지향했던 잠저 시의 태자가 왕위에 나아간다는 것은 오히려 파란에 휩쓸리는 것”이라는<sup>55)</sup> 주장도 이 대목을 정치적 격랑에 비유한 것이다. “뚝그림제 넷 모랫 / 널 물결 애와 티뚝’은 인간세상의 변덕스러움을 시적으로 비유한 것이다. ‘뚝’에 갑자기 ‘물결’이 높아진 것은 격동과 파란을 뜻한다. 물결이란 곧 외계(外界)로부터 가해 온 변수이다. 그것은 신충에겐 이롭지 못한 정치 세력의 준동이 될 것이다. 이것을 신충은 서정시의 리듬으로 차분하게, 그러나 조금은 감상적인 음성으로 읊조리고 있는 것”이라는<sup>56)</sup> 견해도 비슷한 관점이다. 나아가 “물을 이기는 모래”처럼 변치 않는 강인함으로 세상을 본래 상태로 회복하리라는 의지를 담은 구절로 해석하기도 한다.<sup>57)</sup>

비유와 상징에 대한 견해도 상이하여 “‘달그림자 고인 뚝’에서 달은 왕비를 상징하고, 달그림자는 왕비의 허상, 즉 외척 김순원을 표상한 것이고, ‘달그림자 고인 뚝’이란 곧 외척 김순원의 전횡에 놀림을 받고 있는 당시 정치적 상황의 표상이며, ‘지나가는 물결’이란 김순원의 전횡으로 일어나는 파상적 힘의 표현이니, ‘모래’는 외부의 파상적 힘에 할킴과 부대낌을 당하는 대상물일 수밖에 없다. 이는 곧 정치권에서 소외된 시적 자아의 비애를 모래에 투사시킴으로써 모래와 시적 자아를 동일화하고 있는 것”이라고<sup>58)</sup> 본 견해가 있다면, 바라보는 주체는 ‘모래’이고, 객체는 임금

53) 성호경, 『신라 향가 연구 -바른 이해를 위한 탐색』(태학사, 2008), 100~101면.

54) 류렬, 앞의 책, 194면.

55) 尹榮玉, 『新羅詩歌의 研究』(螢雪出版社, 1991), 212면.

56) 朴魯埵, 『新羅歌謠의 研究』(悅話堂, 1982), 159면.

57) 서철원, 『향가의 역사와 문화사』(지식과교양, 2011), 181면.

을 표상하고 있는 하늘의 ‘달’이므로 이 구절은 아래에 침잠해 있는 모래가 일렁이는 물결을 통해 흐릿하게 바라보는 ‘달’을 표현한 것이라는<sup>59)</sup> 관점도 있다. 또 “궁원의 연못으로 흘러들어가는 물과 새어나오는 물을 구분하여 자신을 후자의 신세에 비유”하면서<sup>60)</sup> 처량함을 더했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그간에는 <원가> 6구 ‘行尸浪阿叱沙矣以支如支’ 해석의 보편적 근거를 다른 문헌에서 찾는 일보다 <원가>와 그 산문 전승 속에서 비유와 상징의 근거를 찾는 데 주안점을 두어 왔기에 논자마다 해석이 달랐다. 그러나 이 부분은 <원가>의 의미 해석에 매우 중요한 만큼 전고를 살펴 좀 더 실증적으로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

(15) “멀리서 보면 흡사 눈꽃이 날리는 듯/자기 몸도 못 가누는 허약한 체질이라/조수 물결 까부는 대로 모였다 흩어지고/바다 바람 부는 대로 높아졌다 낮아지네./연무 자욱한 비단 폭 위엔 사람 자취 끊어지고/햇빛 되쏘는 서리 발엔 학의 발길이 느긋해라/가슴 가득 이별의 한 읊조리다 어느새 밤/마침 달이 또 밝으니 이를 어찌할거나”<sup>61)</sup>

(16) 궁내부 특진관 김철희(金喆熙)가 상소하기를,

“돌아보건대 신이 평소에 앓고 있던 병은 뿌리가 이미 깊어서 약을 써도 효과가 없으니, 비유하자면 썰물에 밀리는 모래가 이리저리 정처 없이 흩어지고 서리 맞은 풀이 시들어 다시 싱싱해지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즉 차라리 평화로운 시대에 성상의 명을 거스르는 죄를 지을지언정

58) 김승찬, 『신라 향가론』(부산대학교 출판부, 1999), 186~187면.

59) “말간 달빛이 비치는 곳은 밝은 세상, 곧 임금의 세상이고, 어둡고 침침한 수면 아래의 세상은 버림받은 신궁의 세상이며, 그 사이에 가로막힌 일렁이는 수면은 바로 현실정치인 것이다.”라고 하였다.(박재민, 「怨歌의 재해독과 문학적 해석」, 『民族文化』 34, 한국고전번역원, 2010.1, 261~262면).

60) 신재홍, 「원가와 만전춘별사의 궁원 풍경」, 『국어교육』 138(한국어교육학회, 2012), p.214.

61) “遠看還似雪花飛 弱質由來不自持 聚散只憑潮浪簸 高低況被海風吹 煙籠靜練人行絕 日射凝霜鶴步遲 別恨滿懷吟到夜 那堪又值月圓時”(崔致遠, 沙汀, 『桂苑筆耕』 卷 20, 詩).

감히 오늘날 신이 조정에 나아갈 생각은 하지 못하겠으니, 지은 죄가 자연 커서 스스로 속죄하기가 어렵습니다.<sup>62)</sup>

(15)는 최치원의 <모래섬(沙汀)>, 즉 ‘물가 모래톱’이라는 제목의 한시로, 물살에 휩쓸리는 모래의 모습을 묘사적으로 그렸다. 바람에 날리는 모래를 눈썹에 비유하면서 자기 몸을 가누지 못하는 허약체질이라 했다. 조수 흐름에 따라 모였다 흩어지고 바람이 부는 대로 높아졌다 낮아졌다 하므로 모래는 허약하고 주체적이지 못하며 외부 환경에 따라 이리저리 휩쓸린다 했다. (16)은 김철희(金喆熙)가 병세의 위중함을 들어 자신에게 제수한 벼슬을 고사하는 상소문이다. 병세를 “썰물에 밀리는 모래가 이리저리 정처 없이 흩어지고”, “서리 맞은 풀이 시들어 다시 싱싱해지지 않는 것”에 견주었다. 병으로 인해 자기 몸도 가눌 수 없고, 도저히 기운을 차리기도 어렵다는 점을 썰물에 밀리는 모래, 서리 맞은 풀에다 견주고 있다.

(17) “역로에서 이별을 하고서는 의지를 잃은 것 같아 마음의 방향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 나는 곧 시끄러운 도회지로 들어와서 여러 가지 바쁜 일을 감수하다 보니 마음도 따라서 방자하여 전도되므로 두려워서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게다가 거센 물결에 날리는 모래와 같은 비방이 아직 끝나지 않아, 마음을 어지럽히고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여러 말들이 때때로 귀에 들어오니, 천화(天和) 화기(和氣)를 함양하는데 크게 방해가 됩니다.”<sup>63)</sup>

(17)에선 마음을 어지럽히고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비방의 말을 거센 물결에 날리는 모래에 비유했다. “비(碑)가 새겨진 이듬해 최유청(崔惟淸)과 정서(鄭敍)가 함께 참조되어 유배되거나 폄출(貶黜)되었는데, 당시 조정의 신하들이 우리를 미워하여 온갖 욕설로 공격하면서 반드시 죽인 다음이라

62) “顧臣素有貞疾 源委既深 藥餌無效 譬如退潮之沙 演漾無定 經霜之草 委靡不振 則寧犯明時逋慢之罪 不敢爲今日呈身之計 獲戾自大 難以自贖”(『承政院日記』 고종 38년 12월 ; 『승정원일기』 고종 191, 민족문화추진회, 2003, 178~179면).

63) “歷路辭別 不禁屏營 … 鏞遽投闕闔中 消受諸般滾汨 恐此心隨即放倒 惶懼不知所出 兼之駭浪飛沙 尙未妥帖 種種亂心皺眉之說 時來入耳 此于涵養天和 大有妨礙”(『茶山詩文集』 卷19, 書, 與蔓溪).

야 적개심이 풀릴 듯하였다.”는 경우처럼<sup>64)</sup> 빗발치는 비방과 욕설을 물결이나 바람 속의 모래에 견주고 있다. 종합하면, <원가> ‘널 끊겨랏 몰애’는 “자기 뜻에 따라 주체적으로 살지 못하고 외부환경에 이리저리 휩쓸리는 신세”, “몸을 가누어 스스로를 주체하지 못할 만큼 극심한 공격이나 비방에 시달리는 처지”에 대한 비유적 표현이다.<sup>65)</sup>

다음에 이어지는 부분이 7·8구 ‘兒史沙叱望阿乃 世理都之叱逸烏隱第也’이다. 이 부분의 해독은 “중사 브라나(얼굴이야 바라보나)”(양주동), “즈스삿 브라나(모습이야 바라보지만)”(김완진)로서 대체로 일치한다. 담긴 의미는 “신충이 자기를 완전히 잊어버리고 다른 사람들만 불러 올려다 벼슬을 주는 효성왕의 배신이 섭섭하고 안타깝기는 하지만 옛정을 그대로 잊을 수 없어 자기의 믿음을 바꾸지 않고 ‘그전과 마찬가지로 효성왕의 그때의 그 모습을 그리워하고 바라기는 하나’라는 호젓하고 애타는 마음을 그렸다”고<sup>66)</sup> 말해 왔다.

(18) “진표(陳豹:子皮)라는 자가 있는데, 키가 크고, 등이 굽어 있고, 눈은 늘 위를 쳐다봅니다. 양백준(楊伯峻)이 주하기를, ‘망시(望視)’는 위를 쳐다본다는 말이다. … 대개 곱사등이는 눈이 위를 향한다.”<sup>67)</sup>

‘망시’란 위를 쳐다본다는 말이다. “돼지가 하늘을 쳐다보고 눈썹이 붙으면 고기에 쌀알 같은 망울이 있다. 정현(鄭玄)이 ‘망시’란 하늘을 쳐다보는 것을 말한다고 주석하였다.<sup>68)</sup> “누가 송나라 멀다 하는가. 발돋움하면 가히 바라볼 수 있도다. 정현이 주하기를, 발돋움만 한다면 그것을 볼

64) “碑既鐫石之明年 臣與叙 俱爲讒邪 所構 或流或貶 朝士 皆忌惡臣等 百喙攻擊 必欲置之死地以滿 讎”(崔惟清, 先覺國師碑陰記, 『先覺國師碑銘』, 奎章閣 microfilm 81-103-455-G, 6면).

65) 해석은 다르지만 “以支如支”를 “-이기 다히”, “이기다히”라는 독법(홍기문, 『향가 해석』,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과학원, 1956, 288면; 신재홍, 『향가의 해석』, 집문당, 2000, 281면)이 이와 같은 구절 풀이의 근거가 될 수 있겠다.

66) 류렬, 앞의 책, 196면.

67) “有陳豹者 長而上僂 望視 楊伯峻 注 望視 仰視貌…大概 背駝者 目皆向上”(『左傳』 哀公 14年).

68) “豕望視而交睫 腥 鄭玄 注 望視 視遠也”(『禮記』 內則).

수 있다.”에서<sup>69)</sup> ‘망견(望見)’도 멀리 바라본다는 뜻이고, ‘망원(望遠)’이나 ‘요망(遙望)’<sup>70)</sup>도 “멀리 바라봄, 올려다 봄”을 뜻한다. “공자가 말씀하기를, (군자란) 말에 도리가 있고 좋고 싫음에 정한 바 이치가 있는 까닭에 그 모습을 바라보기만 해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가까이 있어도 혹되지 않고 멀리 있어도 의혹이 없다.”고<sup>71)</sup> 했는데, 여기서도 ‘可望貌而知’는 멀리서 그 모습을 바라보기만 해도 알 수 있다는 의미로 쓰였다. 범녕(范甯)은 ‘모(貌)’는 용모와 몸매를 말하고, ‘형(形)’은 안색(顔色)을 말한다고<sup>72)</sup> 하였다. 그러므로 <원가>의 ‘중사 바라나(兒史沙叱望阿乃)’는 신중 자신이 왕의 곁에서 멀리 벗어나 그저 모습을 바라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왕의 안색을 살피드리지 못한다는 안타까운 심정을 담고 있다.

8구 ‘世理都之叱逸烏隱第也’도 “누리도 아쳐론데여(세상도 살기 싫은 때여)”(양주동), “누리도 이럿 을온디여(세상도 이리 흐린저)”,<sup>73)</sup> “누리도 이저기잇 브리온데라(세상도 이제는 나를 버렸는가 보다)”(유창균) 등 참으로 다양한 해석이<sup>74)</sup> 있다. ‘世理’는 ‘누리’, 곧 ‘세상’의 의미로 일찍 정해(正解)되었다. 그러나 이어지는 ‘都’에 대해서는 재고의 여지가 있다. 이

69) “誰謂宋遠 跂予望之 鄭玄箋 跂足則可以望見之 誰謂宋國遠乎 但一跂足而望 則可以見矣 明非宋遠而不可至也 乃義不可而不得往耳”(『詩經』 卷3, 衛風 河廣).

70) “窮居而閒處 升高而望遠 坐茂樹以終日 清泉以自潔 採於山 美可茹 釣於水 鮮可食”(韓愈, <送李愿歸盤谷序>), “누른 식 나무 사이의셔 우니 멀리 바라미 되 빗치 푸르도다(黃鳥樹間囀 遙望山色靑)”(鶴石集 4b).

71) “子曰 唯君子 … 言有常也 由好惡有定 可望貌而知 故近不惑 而遠不疑也”(衛湜 찬, 『禮記集說』 권33, 緇衣).

72) “望遠者 察其貌而不察其形 范甯注 貌 姿體 形 容色”(穀梁傳, 桓公14年).

73) “일어나는 물결에 달그림자 부서져 흐리듯 세상도 다 이렇게 혼미하구나. 그런데 아직도 어리석게 무엇을 바라는가?”(李鐸, 『國語學論攷』, 正音社, 1958, 237면).

74) “누리도 짓 일온 터예(세상도 체통 잃어 신의 모르는 판세로다)”(정열모, 1947)/ “누리도 지지릴 가문 데라(세상은 지지리 더러운 데구나)”(정열모, 1965), “누리 셔볼엿 일온테여(澆薄한 인정세태가 아름다운 우리나라의 서울 경주에 이루어진 이때여니)”(지현영), “누리도 좃드론테야(세월인즉 마저 함부로 달아난 것이로구나)”(서재극), “누리도 아쳐론테여(세상도 한스러운지고)”(김상익), “누리 모도잇 이론 데여(세상 모든 것에 일을 마친 결과로 되게 한 경위(經緯)여)”(금기창), “누리 도 밝읷 잃온테야(세상도 밝읷 잃었구나)”(양희철), “누리 아모잇 숨은 테야(세상 아무데에 숨은 적에야)”(신재홍).

는 보조사 ‘-도’의 차자로 풀이되기도 했다. 그러나 후행하는 ‘之叱’이 ‘옛(잇)’으로 읽히는 처격조사이므로, ‘도’를 본연의 의미인 ‘모든, 모두’로 풀이하는 데<sup>75)</sup> 동의하고, ‘逸’을 “읽다, 잊히다.”로 풀어 “누리 모두다 잊은 등제(等第)여(세상 모두에게 잊힌 등용이여)”, 즉 세상이 물결 아래의 모래를 보지 않듯이 신종의 등용 역시 세상 모두에게 잊히고 말았음을 표현하고 있다는<sup>76)</sup> 뜻으로 이해하는 관점이 있다.

하지만 필자는 ‘第也’를 느낌이나 깨달음, 또는 장중한 어조를 띠며 감탄의 뜻을 나타내는 종결어미 ‘—구나’로 읽어 “세상 모든 것을 잃어버렸구나.”로 해석하면서, 상황에 따라 달라진 자기 처지에 대한 시적 자아의 인식 및 탄식”으로 본 견해에<sup>77)</sup> 동의한다. ‘世理’는 ‘누리’, ‘都隱’은 ‘모든’이며 ‘之叱’은 형식명사 ‘갓(=것)’, ‘逸烏隱’은 ‘여히온’, ‘第也’는 ‘딤여’로 읽어, “누리 모든 갓 여히온 딤여(세상 모든 것 여히여 버린 처지여)”라<sup>78)</sup> 한 견해도 자신의 처지에 대한 탄식으로 읽으므로 본고는 이들 해독에 따르고자 한다.

“누리 모든갓 여히온 딤여”에서 ‘여히다/여히다’는 다음과 같은 쓰임을 보인다.

(19) “나조희 婚娶호고 새배 여히유물 니르느니 아니 너므 섹르니여”(暮婚晨告別 無乃太匆忙)(초간본 『두시언해』 8:67), “여힐 리(離)”(신합하:43)

(20) “첫ᄃᆞ슬히 이 亭子를 여히요라”(初秋別此亭)(초간본 『두시언해』 3:35, 36), “부모도 브리며 집도 여히오”(違背爺孃 離家別貫)(부모은중경 24), “여러 법연(法緣)을 여히약 分別성(分別性)이 업슌딘댄”(離諸法緣無分別性)(능엄경언해 2:26).

(19), (20) 모두 ‘여히다’는 “여의다, 떠나다, 이별하다”(別/離)의 의미로 쓰

75) 박재민, 『新羅 鄉歌 辨證』(태학사, 2013), 274면.

76) 박재민, 위의 책, 274면, 347면.

77) 성호경, 『신라 향가 연구 -바른 이해를 위한 탐색』(태학사, 2008), 104~105면.

78) 김완진, 『향가해독법연구』(서울대출판부, 1980), 143면.

였다. “누리 모든갓”은 목적어가 되고, “여히온디여”는 서술어가 되니, 목적어인 세사(世事)·속사(俗事)·속세간(俗世間)·세고(世故)·세루(世累)·속루(俗累)·진루(塵累), 즉 세상살이에 얽매인 너저분한 일을 떠난다는 의미로 읽을 수 있다. 곧, “사바세계(娑婆世界)를 여히야 지이다”,<sup>79)</sup> “내라 무슴헬이 업스며 악명을 벗고져 아니라마는 하 설위 애를 써 트난 닷 간당이 줄고 심간의 불이 붓는 듯하니 후일 싱각이 업스이서 이 인간을 여히고져 하야 손조 죽고져 하노라”(〈서궁일기 1:57〉)의 의미와 같다. 서술어 부분의 의미사인 ‘逸’과 목적어 ‘世理都隱之叱’을 합치면 “위(魏)나라 서간(徐幹)이 <칠유(七喻)>의 ‘일속(逸俗) 선생이 암석 아래에서 받을 갈면서 깊은 골짜기 골속에서 벼슬 앓고 놀며 지냈다.’ 하였다.”,<sup>80)</sup> “세상을 피해 숨는다.”는 뜻의 일은(逸隱), 속세를 버리고 은거하는 사람을 뜻하는 일민(逸民)에서의 ‘일(逸)’처럼 “세상에서 떠나다, 숨다”의 의미가 된다. 요컨대, <원가>의 8구 ‘世理都之叱逸烏隱第也’는 “나는 속세를 떠나 숨어 살면서 거짓을 꾸며 임금을 비방하는 사람을 의롭다고 여기지 않는다.”,<sup>81)</sup> “선표(單豹)는 세상에 등 돌리고 속세를 떠나 바위굴에서 살며 계곡물을 마셨다. 명주나 삼실로 만든 옷도 입지 않고, 오곡도 먹지 않으면서 70년을 지냈는데도 도리어 어린아이와 같은 혈색을 지니고 있었다.”<sup>82)</sup> 쓰인 것처럼, “살던 곳을 떠나 감”, “세상의 모든 일을 떠나, 숨어 지내다.”이라는 뜻의 이속(離俗)·이거(離居)·이절(離絶)과<sup>83)</sup> 같은 말로서, 속세 즉 벼슬살이하는 번거로운 정치 현실에서 벗어나 은거하여 살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논의를 반영하여 <원가>를 현대어로 의역하면, “좋은 잣나무는/

79) 『월인석보』 8:4, 『월인천강지곡』 219.

80) “魏 徐幹七喻曰 有逸俗先生者 耦耕乎岩石之下 栖遲乎穹谷之岫”(『藝文類聚』 卷57).

81) “離俗隱居 而以作非上 臣不謂義”(『韓非子』 卷2, 18편 有度).

82) “單豹倍世離俗 巖居谷飲 不衣絲麻 不食五穀 行年七十 猶有童子之顏色”(『淮南子』 卷18, 人間訓).

83) “谷風 刺夫婦失道 衛人化其上 淫於新婚而棄其舊室 夫婦離絶 國俗傷敗焉”(『詩經』 邶風, 谷風序).

가을에도 시들지 않는데, / '너를 어찌 잊을까' 하시던, / 우러러 뵈시던 왕께서  
 낮빛을 바꾸실 줄이야! / 달이 그림자 내린 연못, / 흐르는 물결의 모래처럼  
 (휩쓸리는 신세 되어), / (임금님) 모습을 멀리서 바라보며, / 속세의 모든  
 것을 피해 숨었도다."가 된다.

#### 4. <怨歌>의 의미 구조와 작품 성격

<원가>의 1·2구는 가을이 되어도 시들지 않는 잣나무의 속성에 견주면서 '왕자무희언'의 당위를 강조하는 전제를 만들었고,<sup>84)</sup> 3·4구는 언약이 지켜지지 못하는 정치현실에 대한 안타까운 심정을 표현했다. 자연의 불변성과 인간 세상의 가변성을 대조시키면서 아쉬운 마음을 극대화했다. 5·6구에서는 자기 처지를 물결에 휩쓸리는 모래에 견주어, 주체적이지 못하고 불안하며 외부 환경에 따라 이리저리 휘둘리는 빈약한 자신의 정치 입지를 그렸다. 7·8구는 왕을 곁에서 모시고 싶지만 속세를 떠나 지내야 하는 현실을 적었다. 3·4구가 원인이고, 5·6구와 7·8구는 결과이다. '후구망(後句亡)'<sup>85)</sup>이라 했으니 9·10구의 내용을 알 길 없으나 정치 상황의 변화와 질서 회복을 촉구하는 마무리였을 것으로 추측한다.

<원가>는 왕과의 사전 언약이 있어 전제왕권을 위한 협조를 약속했었지만 당시의 정치 현실에서 자신의 입지를 찾지 못하고 흐르는 물결 속의 모래와 같이 주체성을 갖지 못하고 이리저리 흔들리며 갇은 비난에 시달리다가 세상일에서 벗어나 지내는 신충의 처량한 신세를 그렸다. 다시 말해, 효성왕이 시중, 상대등과 연합하여 질서와 타협 속에 전제왕권을 유지하는 것이 '있어야 할 현실'이라면, 외척세력인 김순원 계의 일방적 힘의

84) 李丞南, 「삼국유사 신충괘관 조의 의미소통과 향가 원가의 정서적 지향」, 『韓國思想과 文化』 46(한국사상문화학회, 2007), 167~168면 참조.

85) 成武慶, 「<怨宮庭栢歌>가 亡失한 後句의 시적 가능성에 대하여」; 반교어문학회, 『신라가요의 기반과 작품의 이해』(보고사, 1998), 519면 참조.



우위로 효성왕조차도 정치 현실에서 별다른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상황은 ‘있는 현실’이다. <원가>는 있어야 할 현실과 있는 현실의 괴리 속에서 자신의 입지를 찾지 못하고 있는 신충의 착잡한 심정을 담고 있다. 효성왕의 잠저(潛邸) 시절, 효성왕과 신충의 언약이 1차 계기라고 한다면 <원가>를 붙여 잣나무가 누렇게 마르는 목이(木異) 현상이나 중시 의충의 죽음은 신충의 정계 복귀에 또 다른 명분을 제공하여 권력구도 재편의 2차 계기를 만들어주었다. ‘신충 과관’ 조는 신충이 귀족들 간에 존재한 힘의 우위에서 밀려 잠시 물러나 있다가 중시 의충이 죽음 따라 권력 구조 재편의 계기가 만들어지고, 지난날의 약속을 증명이라도 하는 듯이 잣나무가 누렇게 마르는 목이(木異) 현상이 뒤따라 대의명분과 민심을 얻어 정계에 복귀하는 일련의 과정을 담았다.

<원가>를 왕과 신하의 맹약(盟約)과 위약(違約)의 노래로 읽거나, 왕의 사랑을 받던 총신(寵臣)이 실의의 말년을 노래로 자위한 것으로 이해<sup>86)</sup>하거나 연군류 시가의 전통을 만들었다고<sup>87)</sup> 해석하는 관점은 <원가>와 관련 서사를 문면대로 읽은 것이라 대체로 공감한다. 그러나 <원가>를 주술, 혹은 서정 가운데 무엇으로 보느냐 하는 문제는 숙고를 요한다. <원가>를 지어 붙인 것을 “원시시대의 의례(ritual)처럼 욕구 충족을 위한 상징적 제의(祭儀)”로<sup>88)</sup> 보기도 하고, 주술적 송고미 속에 맹약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소극적인 명령법을 담은 노래로<sup>89)</sup> 해석하기도 한다. 신충과 효성왕이 바둑을 둔 것을 두고 왕권 획득을 위한 밀사(密祀) 내지 상징으로 보고 왕의 식언(食言)을 신군(神君)으로서의 자격, 즉 신성성을 상실한 것으로 보면서 <원가>를 지어 붙인 것을 제의적 행위로<sup>90)</sup> 해석하기

86) 이은상, 「향가의 가요사적 지위」, 『현대평론』 1929.3 ; 李基白, 景德王과 斷俗寺 怨歌, 『新羅政治社會史研究』(一潮閣, 1974), 224면.

87) 金鍾雨, 『鄉歌文學研究』(이우출판사, 1980), 172~174면 ; 윤영옥, 信忠掛冠과 怨歌, 『삼국유사와 문예적 가치 해명』(새문사, 1982), 118~139면.

88) 金烈圭, 「怨歌의 樹木(栢) 象徴」, 『국어국문학』 18(국어국문학회, 1957), 110면.

89) 金學成, 『한국고전시가의 연구』(원광대 출판국, 1980), 244~245면.

90) 黃滄江, 「信忠怨樹譚의 神話의 考察」, 『韓國敍事文學研究』(단국대출판부, 1972), 196~198면.

도 한다. <원가>를 “예로부터 내려오던 토속적 원시신앙 가운데 수목정령 신앙에 바탕을 두고 이루어진 주술적 향가”로<sup>91)</sup> 보거나 이를 “실제화, 곧 효과에 있어서 주문과 다를 바가 없고 첩(帖)으로 볼 때는 주부적(呪符的)”이라 한 것도<sup>92)</sup> <원가>의 주술적 기능을 강조한 해석이다.

반면 <원가>를 서정 가요로 보는 시각도 만만치 않다. <원가>는 “무정한 세상일을 탄식하는 서정 가요”이고,<sup>93)</sup> “<모죽지랑가>와 더불어 종교적 요소를 지니지 않은 순수 서정시, 자연과 정신의 병렬적인 대비에 의한 구조”라고<sup>94)</sup> 분석하기도 한다. <원가>에 주술적 의도가 내포되어 있으나 적어도 내용상으로는 서정이 전부이고, 주술적 요소가 없으니 <원가>의 주술성은 외연으로 따로 떼서 거론해야 한다.”<sup>95)</sup> “<원가>는 주술적인 힘으로 무언가를 극복하는 주가(呪歌)가 아니라 개인적 정서가 세련된 비유와 상징으로 드러난 서정시의 진수”라<sup>96)</sup> 한 것은 <원가>를 서정이 우세한 작품으로 본 견해이다.

<원가>는 분명히 서정적 내용이지만 잣나무에 노래를 붙인 것은 단순한 전달의 차원을 넘어 주술적 의도를 가졌다. 서정은 보편적 장르의 문제이지만, 주술은 신앙·의식의 문제로서 범주가 다르다. 작품 내용에 창작 목적이 투영되는 경우가 많은데, <원가>는 그렇지 않은 것이 특징이다. <원가>는 잣나무의 수목 정령(精靈)<sup>97)</sup>을 향해, 자기의 심정과 처지를 드러내어 현실 문제가 개선되기를 희망했다는 점에서 분명 ‘주구(呪具)’로 활용되었다. “강한 신, 불의 신이여, 그들의 마력을 깨뜨려주세요.”나 “너

91) 허영순, 『우리 고대사회의 무속사상과 가요』(세종출판사, 2007), 211면.

92) 林基中, 『新羅歌謠와 記述物의 研究 -呪力觀念을 中心으로』(半島出版社, 1981), 119면.

93) 全圭泰, 『論註 鄉歌』(정음사, 1976), 275면.

94) 이재선, 「신라 향가의 어법과 수사」, 『향가의 어문학적 연구』(서강대, 1972), 149면.

95) 朴魯堉, 『新羅歌謠의 研究』(悅話堂, 1982), 156~157면.

96) 김혜진, 「<원가>의 서정성 연구」, 『태릉어문연구』 14(서울여자대학교 인문과학대학 국어국문학과), 18면.

97) J.G.Frazer, 장병길 역, 『황금가지 I』(삼성출판사, 1990), 163면.

의 가슴병과 황달은 태양으로 올라가라...원컨대 이것이 손상 없이 노란 색에서 해방되기를!”과<sup>98)</sup> 같은 주술적 언술은 없지만, 마지막 2구의 내용을 확정할 수 없으니 선불리 단정내리기도 어렵지만, 서정적 내용을 담았으나 <원가>가 원인이 되어 잣나무가 갑자기 말랐으니 주술적 쓰임도 간과할 수 없으니 주안점에 따라 작품에 대한 이해가 다를 수 있다.

고대·중세에 궁정 잣나무의 고사를 바라보는 시선은 진지하다 못해 엄숙하다. 단종 계유(癸酉)에 버드나무가 갑자기 죽으니 혹자가 유성원(柳誠源)에게 ‘재앙은 반드시 버드나무로부터 시작될 것이다.’라고 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과연 징조가 나타났다.”,<sup>99)</sup> “말라죽은 대추나무가 다시 살아 나거나 거둬 무성하니 왕의 탄생이 있다.”는 기록<sup>100)</sup>은 고대·중세 사람들이 자연물의 변화를 인간 세상이나 정치 변화와 연관 지어 예의주시했음을 알려준다. 예조에서 대성전의 나무가 부러진 일로 위안제(慰安祭)를 주청한 일,<sup>101)</sup> “대궐 안의 큰 느티나무가 저절로 말라 죽고, 연이어 좌보(左輔) 흘우(屹于)가 죽으니 왕이 매우 슬피 울었다.”는<sup>102)</sup> 기록은 <원가> 서사에서 잣나무가 누렇게 말라 죽은 목이 현상을 신이나 하늘의 반응으로 여기어 근심했을 것이라는 추측에 힘을 실는다.<sup>103)</sup> 더구나 효성왕과 신충의 언약을 옆에서 지켜 본 잣나무가 누렇게 말라가는 일은 더욱 묵과하기 힘든 근심거리였을 것이다.

“갓 도흔 자시 ~ 이올어디매(物叱好支栢史 ~ 爾屋支墮米)”라 하고, 잣나무가 갑자기 누렇게 말랐다가 신충이 벼슬을 받은 후에 소생했다(栢樹忽黃悴~栢樹乃蘇) 하니, 당시 신라의 정치 세력들이 <원가>의 신통력

98) J.G.Frazer, 위의 책, 50면.

99) “端宗癸酉柳忽枯或戲柳誠源曰禍必自柳始 未幾果驗”(『增補文獻備考』 卷11, 象緯考11, 草木異).

100) 『增補文獻備考』 象緯考11, 草木異.

101) “禮曹啓 昨日風雨 聖廟東庭松栢各一株折傷 請慰安祭 來十二日設行 允之”(『영조실록』 권109, 영조 43년(1767) 8월 9일 경오 4번째 기사).

102) “二十一年 春二月 宮中大槐樹自枯 三月 左輔屹于卒 王哭之哀”(『三國史記』 百濟本紀1 多婁王21年).

103) 허영순, 앞의 책, 219면 참조.

에 크게 주목했음에 틀림없다. 이는 유충에 의해 잣나무의 잎, 신초, 줄기, 가지, 구과 등에<sup>104)</sup> 고사 기미가 보이다가 방제 또는 회복된 일일 수도 있고, 종종 때 조광조 등에 앙심을 품고 남곤(南袞)이 여러 나뭇잎에다 꿀로써 ‘주초위왕(走肖爲王)’이라 쓰고서 벌레를 모아 나뭇잎의 감즙(甘汁)을 갉아 먹게 하고선 마치 한(漢)나라 공손(公孫)인 병기(病己)의 일처럼 자연이 만든 사건으로<sup>105)</sup> 꾸민 정략일 수도 있다. 약관의 나이도 못 되어 왕위에 오른 효성왕이 김순원 계의 강대화로 인해 정국에서 별다른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효성왕 잠저 시에 정치적 유대가 깊었던 자신 또한 효성왕과 뜻을 합하지 못하고 정치권력에서 소외되어 속세를 떠나게 되었으니 정치 국면의 전환을 위해 자연물의 변화를 유도·이용했을 수 있다. 신충의 희원(希願)에 자연물이 신령스러운 힘을 실어준 격이 되었고, 효성왕에게도 신충을 불러들일 명분이 생겼으니 신충은 중시 직을 맡아 정계 구도의 변화를 이끌었을 것이다.

그간 <원가>의 성격 이해도 각양각색이었다. “누리도 싫은지고(양주동)”, “세상은 지지리 더러운 데구나.”,<sup>106)</sup> “세월(=세상인심)인즉 마저 함부로 달아난 것이로구나.” 등은<sup>107)</sup> <원가>의 ‘원(怨)’을 왕에 대한 원망으로 보지만, “세상 모든 것 여희여 버린 처지여”(김완진)는 원망이 외부보다는 자기 내면을 응시하는 가운데 체념적으로 진술하고 있다는<sup>108)</sup> 판단이다. “감성적 서정을 곁들여 자탄하는 가운데 절망적인 상실감을 노래”한 작품으로<sup>109)</sup> 보거나 왕보다 세상과 지배층에 대한 원망으로<sup>110)</sup> 본 시각도 있다. “<원가>가 자연(自然)-인사(人事)를 반복으로 제시하면서 과

104) 신상철, 「잣나무 해충의 생태와 방제법」, 『잣나무의 생태와 문화』(숲과 문화, 2006), 144면.

105) 『선조실록』 권2, 선조 1년(1568) 9월 21일 정묘 2번째 기사.

106) 정열모, 『향가연구』(사회과학원출판사, 1965), 251면.

107) 徐在克, 『新羅 鄉歌의 語彙 研究』(啓明大學校 韓國學研究所, 1975), 48면.

108) 金榮洙, 怨歌, 『鄉歌文學研究』(一志社, 1993), 386면.

109) 황폐강, 『향가문학의 이론과 해석』(일지사, 2001), 427면.

110) 尹榮玉, 「信忠掛冠과 怨歌」, 『三國遺事의 문예적 研究』(새문사, 1982), I-139면 ; 金榮洙, 怨歌, 『鄉歌文學研究』(一志社, 1993), 390면.

거-현재를 대비시키면서 자신의 원망스런 심정을 제시할 뿐 왕에 대한 직접적 원망은 드러내지 않으면서 자기 처지에 대한 체념적 차탄으로 일관했다”고 이해하기도 하고,<sup>111)</sup> “<정과정곡>에 속기(俗氣)어린 애소(哀訴)가 있다면 <원가>는 노래 이름과는 달리 원망이 없으며 시종 담담한 음성으로 무정한 세상사와 각박한 인정세태를 탄식하고 체념한다.”<sup>112)</sup> 보기도 한다.

“만장(萬章)이 물었다. 순임금이 밭에 가서 하늘을 부르며 우셨으니 어찌하여 부르짖으며 우신 것입니까? 맹자가 말씀하시기를, 슬퍼하고 사모하신 것이라고 했다.”에서<sup>113)</sup> 순임금이 부모에 대해 가졌던 감정도 ‘원모(怨慕)’라고 적었다. “나는 힘을 다해 밭을 갈아 공손히 자식 된 직분을 할 따름이니, 부모께서 나를 사랑하지 않음은 나에게 무슨 죄가 있어서인가.”라고<sup>114)</sup> 했으니, 순임금이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한 신세를 슬프게 여기면서 깊은 사모의 정을 가졌던 것을 말한다. <원사(怨詞)>, “소첩이 가지고 있는 비단 옷, 진왕(秦王)이 계실 때 만들었지요. 봄바람 속 자주 춤추었는데, 가을이 오자 차마 입기 어렵네요.”<sup>115)</sup> 궁녀가 예전에 입던 비단옷을 입고 진왕(秦王)에게 총애를 받던 옛 시절을 회상한 작품이니 자기 연민에 가깝다. 또 <원가행(怨歌行)>은 한나라 궁녀 반첩여(班婕妤)가 총애를 받지 못하는 자신을 비단부채에 가탁한 것으로, 총애를 받을 때는 부채가 군주의 품속과 옷소매 사이를 드나드는 것과 같다가 사랑이 쇠하고 나면 하루아침에 서늘한 가을바람이 불어 상자 속에 버려둔 부채와 같이 은혜와 사랑이 끊어진다는 내용이다.<sup>116)</sup> <원가행> 또한 왕의 총

111) 金聖基, 앞의 책, 121면.

112) 朴魯埵, 앞의 책, 160~161면.

113) “萬章問曰 舜往於田 号泣於旻天 何爲其号泣也 孟子曰 怨慕也 怨慕 怨己之不得其親而思慕也”(『孟子』 萬章 上).

114) “我竭力耕田 恭爲子職而已矣 父母之不我愛 於我何哉”(『孟子』 萬章 上).

115) “妾有羅衣裳 秦王在時作 爲舞春風多 秋來不堪著”(沈德潛 攄音, 서성 옮김, 『당시별재집』 5, 소명출판, 2013, 264면).

116) “漢宮班婕妤寵眷旣衰 託興於紈扇 謂其得寵之時 如扇出入於君之懷抱衣袖間 一旦愛衰 則如秋至風涼 廢棄於篋笥中 恩愛絕矣”(『古文眞寶』 卷2).

애를 잃은 서글픈 자기 신세를 한탄한 것이다. “음악이 실상을 잃으면 그 음악은 즐겁지 아니하고, 음악이 즐겁지 않으면 그 백성이 반드시 슬프고 그 생업이 꼭 근심스럽게 된다. 고유(高誘)가 주하기를 ‘원(怨)’은 슬픔이라.”<sup>117)</sup> 했는데, 군주제사회였던 점이나 신충이 곧 중시로 복귀한 사실을 감안하면 <원가>의 ‘원이작가(怨而作歌)’는 원망보다는 “슬퍼하며 노래를 지었다.”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 5. 마무리

<원가> 1~8구의 내용이 주로 정치 현실의 문제, 처량한 마음으로 은둔한 슬픔을 담았다. 이에 망실한 후구(9·10구)는 정치 현실이 달라지기를 기원하는 내용이었을 확률이 가장 커서, 전제정치에 힘을 싣고 외척 세력인 김순원 일파가 세력화하는 정계 구도에 변화를 촉구하는 메시지였을 것으로 추정한다. <원가>를 잣나무에 붙이자 곧 나무가 누렇게 말랐고 신충에게 벼슬을 주고 난 후에 다시 소생하였으니, 이는 목이 현상이 당시 정계 구도를 재편하는 계기가 되었음 말한다. 이런 점에서 <원가>는 현실적 목적성이 강한 작품이다.

<원가>는 자신과의 언약을 지키지 않는 왕에 대한 원망의 노래라기보다는 언약을 지킬 수 없는 정치적 권력구도에 대한 반론이고, 효성왕 곁에서 사랑을 받지 못하는 자기 신세를 탄식하는 원모와 슬픔의 노래이다. 자기감정을 진솔하게 드러냄으로써 수목의 정령을 움직여 명분을 얻고 뜻을 이루었으니 사람들에게겐 천지 귀신과 감통하는 마력의 언어로 여겨졌을 것이다. 8구에서 세상 모든 일을 떠날 것처럼 표현한 것은 역으로 세상에 대한 아쉬움과 미련이 그만큼 크다는 뜻이다. “널 뭍겨랏 몰애”라는 비유

117) “失樂之情 其樂不樂 樂不樂者 其民必怨 其生必傷 高誘注 怨 悲”(『呂氏春秋』侈樂).

에도 화자의 마음이 잘 담겨 있는데, 이는 당시에 신충이 “자기 뜻에 따라 주체적으로 살지 못하고 외부 환경에 따라 휩쓸리면서, 자신을 감당하고 가눌 수 없을 만큼 극심한 공격이나 비방에 시달리는 처지”였음을 말해준다. <원가>는 자신의 뜻과 상반되게 흘러가는 정치 현실에 대한 비애와 자탄을 담아 향후 정치 구도의 변화를 꾀한 작품이다.

## 참고문헌

### 자료

『呂氏春秋』, 『古文眞寶』, 『唐詩別裁集』, 『孟子』, 『三國史記』, 『三國遺事』, 『漢韓大辭典』5, 『大明律 直解』, 『文心雕龍』第47, 『世說新語』, 『史記』, 『西河先生集』, 『史記本紀』, 『孟子』, 『桂苑筆耕』, 『茶山詩文集』卷19, 『左傳』, 『禮記』, 『禮記集說』, 『月印釋譜』, 『月印千江之曲』, 『藝文類聚』, 『韓非子』, 『淮南子』, 『增補文獻備考』, 『英祖實錄』, 『宣祖實錄』

### 저서 및 논문

- 姜吉云, 『鄉歌新解讀研究』, 한국문화사, 2004.
- 金聖基, 「怨歌의 해석」, 『한국고전시가작품론 1』, 集文堂, 1992.
- 金成基, 「怨歌의 研究」, 『古詩歌研究』 12, 韓國古詩歌文學會, 2003, 41~60면.
- 金壽泰, 『新羅中代政治史研究』, 一潮閣, 1996.
- 金壽泰, 「전제왕권과 귀족」, 『한국사』 9, 국사편찬위원회, 1998.
- 김승찬, 『신라 향가론』, 부산대학교 출판부, 1999.
- 金烈圭, 「怨歌의 樹木(栢) 象徴」, 『국어국문학』 18, 국어국문학회, 1957.
- 金榮洙, 怨歌, 『鄉歌文學研究』, 一志社, 1993.
- 金完鎭, 『鄉歌解讀法研究』, 서울대학교, 1980.
- 金鍾雨, 『鄉歌文學研究』, 이우출판사, 1980.
- 金晋郁, 「怨歌 形式에 대한 研究」, 『韓國言語文學』53, 한국언어문학회, 2004, 263~282면.
- 金昌謙, 『新羅 下代 王位繼承 研究』, 景仁文化社, 2003.
- 金學成, 『한국고전시가의 연구』, 원광대 출판국, 1980.
- 김혜진, 「<원가>의 서정성 연구」, 『태릉어문연구』 14, 서울여자대학교 인문과학대학 국어국문학과, 1~21면.



- 南豊鉉, 『吏讀研究』, 태학사, 2000.
- 류 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과학원 언어학연구소 기획 조선어 학전서 13 『향가연구』, 박이정, 2003.
- 朴魯埵, 『新羅歌謠의 研究』, 悅話堂, 1982.
- 박봉우, 「옛 그림과 글에서 보는 잣나무」 ; 이천용 편, 『잣나무의 생태와 문화』, 숲과 문화, 2006, 11~17면.
- 박재민, 『新羅 鄉歌 辨證』, 태학사, 2013.
- 박재민, 「怨歌의 재해독과 문학적 해석」, 『民族文化』 34, 한국고전번역원, 2010.1, 221-272면.
- 박재연 주편, 선문대 중한번역 문헌연구소, 『고어대사전』, 학고방, 2010.
- 박해현, 『신라 중대 정치사 연구』, 국학자료원, 2003.
- 朴喜璣, 『散花歌 신향가집』, 佛日出版社, 1988.
- 배대은, 『歷代 이두사전』, 형설출판사, 2003.
- 徐在克, 『新羅 鄉歌의 語彙 研究』, 啓明大學校 韓國學研究所, 1975.
- 서철원, 『향가의 역사와 문화사』, 지식과교양, 2011.
- 성호경, 『신라 향가 연구 -바른 이해를 위한 탐색』, 태학사, 2008.
- 신상철, 「잣나무 해충의 생태와 방제법」, 『잣나무의 생태와 문화』, 숲과 문화, 2006.
- 신재홍, 『향가의 해석』, 집문당, 2000.
- 신재홍, 「원가와 만전춘별사의 궁원 풍경」, 『국어교육』 138, 한국어교육학회, 2012, 203~222면.
- 신형식, 『新羅史』,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985.
- 申滢植, 『統一新羅史研究』, 한국학술정보, 2004.
- 尹榮玉, 『新羅詩歌의 研究』, 螢雪出版社, 1991.
- 尹榮玉, 「信忠掛冠과 怨歌」, 『三國遺事의 文예적 研究』, 새문사, 1982.
- 李基東, 『新羅骨品制社會와 花郎徒』, 一潮閣, 1984.
- 李基東, 「新羅 興德王代의 政治와 社會」, 『國史館論叢』 21, 1991,

97~131면.

- 李基白, 「新羅 執事部の 成立」, 『新羅政治社會史研究』, 一潮閣, 1974.
- 李基白, 「統一新羅와 渤海의 社會」, 『韓國史講座』 古代篇, 一潮閣, 1982.
- 李丞南, 「삼국유사 신충괘관조의 의미소통과 향가 원가의 정서적 지향」, 『韓國思想과 文化』 46, 한국사상문화학회, 2007, 147~174면.
- 이완형, 「信忠掛冠 조에 내재된 진의와 <원가>의 시적 기능」, 『우리어 문연구』 37, 우리어문학회, 2010, 251~277면.
- 이재선, 「신라 향가의 어법과 수사」, 『향가의 어문학적 연구』, 서강대, 1972.
- 李 鐸, 『國語學論攷』, 正音社, 1958.
- 이형대, 「怨歌와 鄭瓜亭의 시적 인식과 정서」, 『한성어문학』 18, 한성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999, 99~118면.
- 林基中, 『新羅歌謠와 記述物の 研究 -呪力觀念을 中心으로』, 半島出版社, 1981.
- 全圭泰, 『論註 鄉歌』, 정음사, 1976.
- 정열모, 「새로 읽은 향가」, 『한글』 99, 한글社, 1947 ; 정열모, 『향가연구』, 사회과학원출판사, 1965.
- 정열모, 『향가 연구』, 사회과학원출판사, 1965.
- 曹凡煥, 「王妃의 交替를 통하여 본 孝成王代의 政治的 動向」, 『韓國史研究』 154, 한국사연구회, 2011, 37~68면.
- 中樞院 編, 『吏讀集成』, 國學資料院, 1975.
- 崔鶴璇, 『鄉歌研究』, 宇宙, 1985.
- 하영진, 「怨恨의 문제와 詩歌의 기능 -<怨歌>를 중심으로」, 『나랏말쌈』 5, 대구대학교 국어교육과, 1990, 131~139면.
- 허영순, 『우리 고대사회의 무속사상과 가요』, 세종출판사, 2007.
- 허왕욱, 「향가 <원가>에 대한 역사적 이해」, 『冽上古典研究』 17, 열상고전연구회, 2003, 171~208면.

홍기문, 『향가해석』,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과학원, 1956.

황패강, 『향가문학의 이론과 해석』, 일지사, 2001.

黃湏江, 「信忠怨樹譚의 神話的 考察」, 『韓國敍事文學研究』, 단국대출판부, 1972.

J.G.Frazer, 장병길 역, 『황금가지 I』, 삼성출판사, 1990.

투고일 : 2014 1월 15일, 심사 : 2014년 1월 17일~2월 7일, 게재확정 : 2월 7일

<Abstract>

The research of meaning of <Wonga(怨歌)> and political reality during the reign of king Hyoseong

Hwang, Byeong-ik

There are a lot of difficulties in interpreting <Wonga> in Hyanga, old Korean folk. Especially, “flowing waving sand” has been in the middle of much controversy. Thus, this study focused on the political background of the writing of <Wonga>, on the base of which was materials that could be grounds of judgement added, attempting to demonstrate this phase with more actual proof. <Wonga> is a message for Sinchung(信忠) to demand the change of the political world characterized by coming to power of maternal relatives, Kim Sunwon(金順元) faction. When <Wonga> was put up on a Korean nut pine, it was withered yellowish, which revived when Shin chung obtained a government position. Therefore, it is probable that the Royal Court would justify itself with this strange phenomenon which had happened to the tree, appeal to public sentiment and try to reorganize the political world under the pretense of it. Judging from this point of view, <Wonga> is an actual and purposeful work. The first to eighth lines mainly include political realities and sorrow in seclusion with a feeling of wretchedness. So the last lines of ninth to tenth lines are likely to include pray for the turnover of the situations at that time.

<Wonga> isn't a song of a grudge but of forethought and grief that lament his misfortune. Revealing his feeling frankly, he justifies himself

and dreams a dream moving the spirit of a tree, thereby it will be regarded as the words with magical powers responding to the spirits of heaven and earth. Telling about seclusion like renouncing this world in the last part of this song paradoxically means that Shinchung has much yearning, affection and expectation in this world. The phrase “flowing waving sand” which has been interpreted differently so far includes the water’s mind, which metaphor says that at that time Sinchung was in the circumstances suffering from severe attack or criticism that was beyond his power, not living subjectively according to his will and being swept off by external circumstances.

**Key words** : Wonga, Sinchung, King Hyoseong, Sunwon Kim, strange phenomenon which had happened to a tree, turnover of situations, waving sand, not subjectively